

CASES

조정중재사례 소개

| 명예훼손 사례 | **국사편찬위원인 신청인의 강연 내용을 왜곡한 보도, 정정보도 게재**

A뉴스통신사는 국사편찬위원인 B교수가 새누리당 C의원이 주도하는 국회의원 모임 초청강연 내용을 보도하면서, 일제시대에 대해 '수탈과 개발이 병존했다'는 주장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강연을 했던 B교수는 '일제시대에 수탈과 개발이 병존했다'는 말은 경제성장 사학자들의 주장에 대한 설명이었고 B교수는 '어떠한 경우에도 일제가 근대화 주체로 서술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설명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조정신청에 대해 피신청인은 심리 전 신청인과 사전 협의해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를 게재했고 신청인은 조정신청을 취하했다.

| 초상권 사례 | **취업 관련 부정적 기사에 동의없이 초상을 촬영·보도, 해당 언론사 연대해 250만원 배상**

D인터넷신문과 E뉴스통신사는 이력서 사진이 너무 잘 나와도 취업에 불리하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증명사진을 찍고 있는 사진을 게재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진을 촬영·보도했고, 신청인과 전혀 무관한 부정적 기사의 주인공처럼 게재되어 피해를 입고 있으며, 특히 사진에 대해 모욕적인 댓글이 게재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힘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피신청인은 동의없이 사진을 촬영, 게재한 것에 대해 심리 중 유감을 표명하였고, 중재부는 피신청인이 연대하여 25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피신청인을 설득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독자마당

언론중재위원회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론  사람]을 읽고 나서 느낀 점 등을 성명, 연락처와 함께 이메일(pac_news@pac.or.kr)로 보내주세요.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김동기 _ 적은 쪽수에 알찬 내용으로 지가(紙價)를 올리고 있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 사람' 사보 중 인본주의를 영상에 담은 임권택 감독님의 인터뷰 가운데 세상 사람들의 진솔한 내용에 감명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100여 편의 작품 중 반 이상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보릿고개 시절에 진정한 작품을 만들지 못했다고 고백하는 점도 이해가 되었고, 그나마 그가 기억에 남은 작품을 내세운다면 서편제와 취화선을 꼽았는데, 두 작품 모두 가장 한국적인 정서에 맞는 판소리와 서민 취객 화가의 애환을 그린 작품으로 관람해서 그런지 수궁이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 한국 사회의 모순점인 양극화 현상에서 가치 중립적 사고로 우리네 사는 인생사를 투영하는 양질의 영화를 만들겠다고 하니 기대 할 만 합니다.

주규배 _ 모든 이야기가 유익했지만 그 중 신 동의보감 '치주질환예방, 장수와 웰빙의 지름길'편이 재미있어서 몇 번씩 읽었습니다. 저 역시 오래전부터 치주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귀찮아서 대충대충 치료를 하고 별것 아니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치아관리가 중요한줄 미처 몰랐습니다. 특히 염증이 심하면 치아를 뽑아야 하는 지경에 이른다고 하니 가슴이 철렁하네요. 가정에서 이를 잘 닦기,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스케일링 받기 등 등 조금만 신경쓰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는 데에 많은 공감을 느끼며 당장 내일부터 실천하여 건강한 치아와 함께 건강하게 살리라 다짐해 봅니다.

이춘성 _ 인문학산책을 보면서 흔히 점치는 복서(卜書)로 알려진 주역은 갑골문으로부터 시작된 수천년의 역사를 가진 중국철학의 정수로 공자의 위편삼절에서도 알 수 있듯 많은 이들이 그 해석과 이해를 위해 애썼고 우리 조상들은 너무 어린 나이, 즉 10대엔 보지 못하게 했는데 그것은 운명론에 빠져 무기력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서 스스로 개척하는 삶만이 진정한 자신의 삶이란 뜻이 오히려 길흉화복을 알려준다는 이 책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선택은 자신의 몫이지만.